

근대 군산의 탄생

The Birth of Modern Gunsan

저자 Author: 오주은 Oh Jueun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강사 Lecturer of College of Design, Hongik University

- 1. 공간을 열다: 대한제국에 의한 개항
- 2. 격자화 되다: 근대적 항구 도시의 등장
- 3. 근대를 쌓다: 군산이 내재한 근대의 시간들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216~231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한국디자인사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특집 기획: 디자인 기획 Special Feature: A Short Design Field Trip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216217

1. 공간을 열다: 대한제국에 의한 개항

대한제국(1897-1910)은 1899년 5월 1일, 목포에 이어 군산을 두 번째 개항장으로 선포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이어진 타월에 의한 개방이 아니라 자월에 의한 개방의 문을 연이어 군산에서 열었다. 20세기의 시작을 목전에 둔 시점에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구로 군산을 지정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대한제국의 광무 개혁 이념인 구본신참(舊本新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구본신참(舊本新參論)이란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 또는 참조한다.”는 뜻으로 이는 19세기 말 개화파에 의해 주창된 개혁 이념인 동도서기(東道西器)와 관계한다. 동도서기와 구본신참은 전통과 근대화의 접목 방식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두 이념 모두 서구적 근대를 받아들이는 데 동양의 정신적 우월함을 전제했다. 그러나 이는 동도서기와 구본신참의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구본신참은 동도서기와 비교할 때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전통적 가치의 토대를 더욱 중요시했다.

동도서기가 주로 서양의 기기적 요소(기술, 산업화)를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구본신참은 제도와 이념의 측면에서 서구의 요소를 반영하되 전통과의 조화를 꾀했다. 무엇보다 구본신참은 중화사상에 뿌리를 둔 동도서기를 벗어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근대 국가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념으로 작용했다. 대한제국은 존속 기간이 짧았지만, 구본신참에 근거하여 20세기적 근대를 맞이하고자 했다.

군산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목될 수밖에 없는 개항지였다. 조선시대 속종 시기부터 군산은 지방의 세금을 운반하는 조운선의 주요 교통로였으며, 중종 7년에는 호남의 대표적인 조운창으로 기능했다. 조운창은 세금으로 낼 각 지역의 곡식을 수납하고 보관, 운송하는 곳으로 군산은 전국 최대 곡창지인 호남평야를 배후에 둔, 조선시대 내내 국가적으로 중요한 세곡 집결지였다. 또한 군산은 조선 3대 시장의 하나였던 강경까지 금강을 왕래하던 상인들이 임시로 머무는 정착지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항 전인 1892년경부터 조선 정부가 운행한 경제호가 입항했고, 청일전쟁 후에는 쌀 수송을 위해 민간에 불하된 대한제국 군함의 입항이 잦을 만큼 근대적 항구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었다.

즉 강화도 조약 체결을 기점으로 문을 연 부산과 원산, 인천이 서구 열강과 일본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개조된 개항장이었다면, 군산은 대한제국의 정치 이념인 구본신참(舊本新參)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익숙하지만 새롭게 인식된’ 전통의 항구였다.

2. 격자화 되다: 근대적 항구 도시의 등장

2.1. 전통 도시의 해체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에 의해 일본은 조선의 지배를 공식화했다. 여러 유형의 지배 방식이 동원220 가운데 일상의 영역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전통의 도시 공간을 해체하고 이를 재구성한 시도였다. 1912년 11월 7일 자 《매일신보》에는 일본이 기존의 도시 공간을 해체하려는 표면적인 이유와 방식을 선전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실렸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우선 도로를 시찰하여 정정유조(井井有條) 하면 그 나라의 풍화와 정치는 가히 문명으로 판단할지며 (…) 이번에 당국에서 각지 시구를 개랑키로 계획한 중에 우선 경성의 도로를 직선으로 사통오달(四通五達)하여 정정유조케하여 일대 모범을 보인다

하니 이는 총독이 조선을 계발하는 노심노력에서 나옴이라.” 사설 『시구개정』, 《매일신보》, (1912.11.7.)

여기서 정정유조(井井有條)란 질서 정연하다는 의미로 문명화 된 나라의 척도는 도로가 질서 정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가 경성을 시작으로 각지 시구(각 지역의 시구)를 개량하려는 것은 조선을 계발하려는 진실된 노력임을 홍보한다.

이렇듯 경성(대한제국의 한성, 조선시대 한양)에서 시작된 전통 도심의 해체 작업은 각 지역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주요 항구로 이어졌다. 그 방식은 사설에서 언급했듯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모든 곳을 도로와 철도를 놓아 직선화하고 격자화 하는 것이었다. 지도 위에 격자화 된 공간은 땅 위에 실체화되는 과정을 거쳐 1) 계산 가능하고, 2) 예측 가능하며, 3) 언제든지 통제 가능한 메트로폴리스의 구조로 변화해 갔다.

2.2. 격자형 패턴의 항구 도시

조선시대의 도시는 상공업 중심이 아닌 행정과 군사적 기능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도시는 소규모의 유통이 가능한 형태를 띠며 내륙 지향적으로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개항을 기점으로 이러한 전통의 도시 형성 요인은 힘을 잃게 된다. 각종 무역이 활발히 전개된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공업에 기반한 근대적 교역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근대적 교역 도시가 나타난 특징이 격자형 패턴의 구역 개발이었다.

따라서 군산도 예외 없이 이러한 격자화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군산은 식민 주체의 시각에서 볼 때 다른 개항장과 구별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항구였다. 군산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부산에 오래 거주하며 일본 《관문신보》 통신원으로 활동한 가츠키 겐타로(香月源太郎)가 1902년에 발간한 『한국안내(韓國案內)』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안내(韓國案內)』는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 및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책으로 당시 가츠키 겐타로는 조선의 사정을 매우 잘 아는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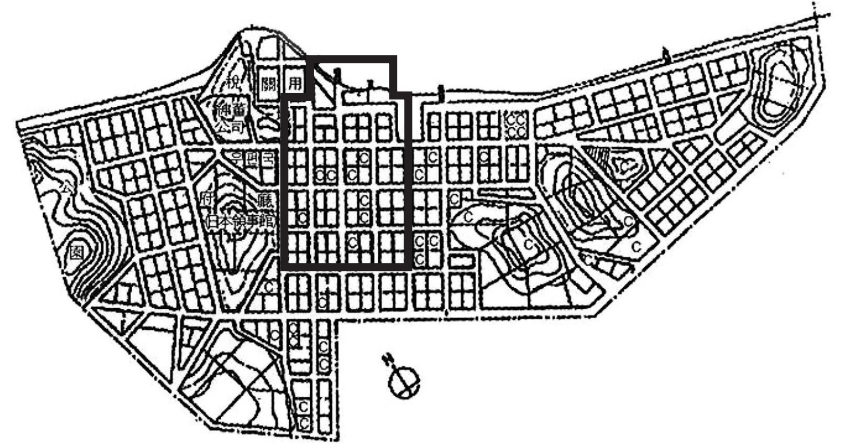
그는 군산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A)는 정박에 좋은 환경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으며 (B)는 향후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군산을 소개하고 있다.

(A) 군산포는 (…) 풍랑의 피해는 비교적 적고, 닻을 내리는 곳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 선박의 계류에는 가장 적당하다. (…) 증기선이 정박할 수 있는 수면은 매우 광활하고 수심은 원래부터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3길(尋, 18척) 내외이고, 만조 시에는 6-7길(36척-42척)이 된다. (香月源太郎, 1902:245)

(B) 예로부터 한국의 부(富)는 전라, 경상, 충청 3도를 총칭하는 삼남에 있고, (…) 금강은 전국 5대강의 하나로서 삼남 서북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쪽으로 전라북도의 반, 북쪽으로 충청남도의 반을 점유하고 있다. (…) 이 지역은 민도(民度)가 높고, 물산을 크게 요출(饒出)하므로 삼남 중의 삼남이라고 칭하는 것도 불가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군산은 족히 산업상의 개발자이고 상업상의 지배자라 할 수 있다. (…) 장래 기선의 기항 수를 증가시키면 통계상 괄목할 만한 발달을 이룰 것이고, 목포를 능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香月源太郎, 1902:251-259)

1899년 개항 이후 군산의 도시화는 항구 주변의 외국인 집단 거류지인 조계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때 조계지는 격자로 분할된다. 표면상으로는 각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계지였지만 대지 대부분이 이미 군산에서 활동 중인 일본 자본가들에게 매매되었고 이들이

행정을 관할했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적 도시화 공식인 격자형이 적용되었다. 근대 도시를 형성하는 기본 구조인 격자형은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 통신과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즉 격자형 구역 개발을 핵으로 한 도시는 주변 공간의 개발을



[그림 1] 군산각국조계도(郡山各國租界圖, 개항 이후 조성된 외국인 거류지), 1911, 출처: 군산시, 『군산시사』, 1991, 이미지 위에 선 표시(필자): 1899년 개항장 선포와 함께 계획된 조계지는 외교 관계를 맺은 각국에 통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는 일본인에게 매매되었고 다른 국가의 외국인들은 이들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군산에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인들은 당시 1880년대 후반부터 군산에 터를 잡은 일본인들이 선점한 ‘조선 시장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토지를 임차함으로써 얻고자 했다. 언어와 생활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경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일본 거류민들을 통해 취하고자 한 것이다. 개항 초기에 설정된 조계지(1899-1911)는 현재 군산 구도심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장미동과 월명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곳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군산을 가장 모던하게 번성시킨 핵심 지구였다.

근대 도시 군산은 바로 이러한 격자화 된 공간에서 탄생했다. 그 탄생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개항의 첫 문을 연 1899년부터 해방을 맞이한 194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군산은 이러한 ‘근대 군산’이라는 지층을 기반으로 재생을 거듭했다. 그러나 시대별 재생의 양상은 달랐다. ‘근대 군산’은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지속된 새만금 간척 사업의 기초 자원이 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관광 도시화를 위한 문화적 자원이 되었다. 현재의 군산은 ‘근대 군산’이라는 시간의 집적체를 하수분 삼아 문화 도시로서의 활성을 꾀하고 있다.

3. 군대를 쌓다: 근대 군산의 시간들

근대 군산의 시간은 크게 네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군산이 개항된 1899년부터 외교를 맺은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고 초기 행정 기관이 들어선 1905년까지다. 두 번째 시기는 1906년부터 1915년까지로 이 기간에는 철도와 도로, 1차 항구 시설이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산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인 1916년부터 1925년에는 2차 항구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군산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네 번째 시기인 1926년부터 1945년까지는 3, 4차 항구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기존 도심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근대 군산’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구분의 기준은 ‘전통의 포구, 군산을 변화시킨 근대적 현상들’이다.

전통의 삶에 변화를 몰고 온 근대적 현상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모든 것과 대별되는 ‘압도적인 낯선 존재감’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근대 군산을 만든 ‘근대적 현상들’도 그러했다.

1899년부터 1945년까지 이러한 '근대적 현상들'은 격자형 패턴의 도시 개발로 지형을 변화시켰고 그 위에는 문명화 된 삶의 양식으로 계몽된 온갖 이질적인 양태의 공간과 사물이 들어섰다. 군산에 자리한 근대적 현상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근대와 접속했거나 그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이는 현재의 군산이 품고 있는 '근대 군산'의 흔적에서 여전히 감지된다. 조선시대 군산포에서 근대 항구 도시, 군산으로 변화해 간 양상을 군산에 쌓인 '근대적 현상들'에 근거하여 그려볼 수 있다. 1899년 이후 1945년 동안 형성된 근대 군산의 모습은 항구 중심의 주변부 평지에 계획된 격자형 패턴의 시가지 개발과 확장, 그 위에 세워진 외래적 양식의 건축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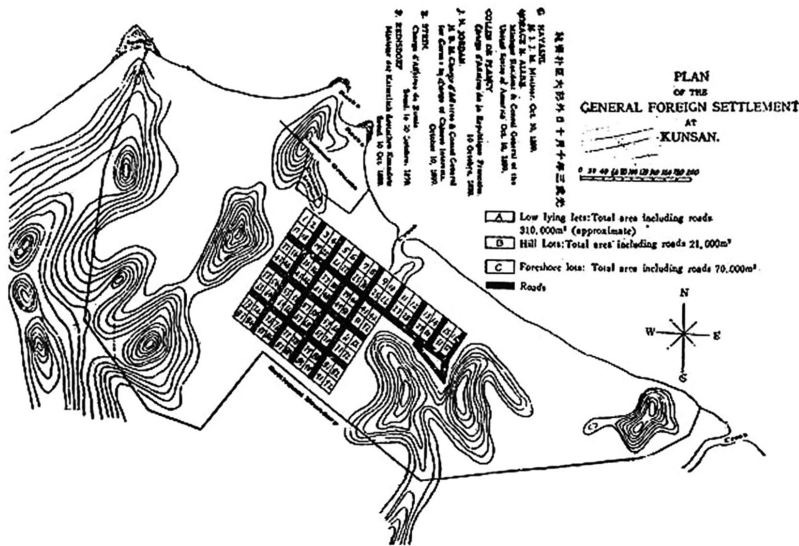
이어지는 내용은 근대 군산이 품고 있는 '근대적 현상들'의 층위를 사료에 근거하여 시각적으로 토틀아 본 것이다. 근대 군산에 대한 별책 부록과 같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별책 부록은 근대 군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시기별 '격자형 도시 개발 지도'와 그러한 땅 위에 등장한 근대적 제도의 표식으로서 건축물의 이미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별책 부록: 근대 군산의 시간들

3.1. 첫 번째 근대의 시간 (1899년-1905년)

개항장과 개항시는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닌다. 개항장은 항구 주변의 토지를 수출입이 원활한 격자형 패턴으로 개발한 신도시이고, 개항시는 전통의 도시 규모와 조직을 유지한 채 다종다양한 근대 시설이 집중 배치된 개시장(開市場)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대한제국 시기의 한성과 군산포에 대입하면 조선시대 한양에 뿌리를 둔 한성은 개항시가 되었고 전통의 포구 군산은 개항장이 되었다. 이 시기의 군산은 바로 이러한 신도시, 개항장으로서의 첫 모습을 드러낸다. 서구 열강들과 교역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대표 항구로 지정되어 외국인들의 활동 기반이 된 거류지가 격자형 패턴으로 처음 들어서게 된다. [그림 2]

거류지 형성과 함께 주거 지역이 개발되면서 군산의 인구 수가 급증한다. 요인은 군산이 항구 도시로 특화됨에 따라 일본인의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활동은 군산이



[그림 2] 군산각국조계도(郡山各國租界圖), 1899, 출처: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 변화 과정 연구』, 일지사, 1982, p.304

220221

개항하기 전부터 이미 활발했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항장으로 선포되고 근대 항구로서의 미래 가치가 확실시되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직업군의 일본인들이 이주하게 된다. 특히 항만 시설 기술자들과 농수산물 도소매업에 자본을 투자한 상인들의 이주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근대 시설물은 감리서를 시작으로 경무서, 재판소, 세관, 우체사, 전신사들이 설치된다. 감리서는 개항장의 사무를 관리하는 곳으로 1895년에 폐지되었다가 대한제국 시기에 부활하여 전국의 개항장에 다시 세워졌다.

개항장에 들어선 공공 기관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근대적 감각의 장을 열었다면, 동일한 시기에 등장한 각종 상업 시설은 군산에 새로운 개념의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선명한 징후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및 종교 시설, 의료와 농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개항장 군산은, 근대 항구 도시로서의 첫 번째 시간을 내재하게 된다.



[그림 3] 1899년부터 1905년 동안 조계지 내에 건축된 근대 시설의 위치(개별 건축물 이미지는 [그림 4] 참조) 본고에 제시된 기본 지도 이미지는 송석기의 연구 「군산지역의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 연구」, (2003)에서 발췌한 것이다. 지도 위의 이미지와 범례 표기는 관련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다시 본고의 내용에 맞게 필자가 재구성했다. 이후 제시되는 [그림 4], [그림 6], [그림 8], [그림 10]의 경우도 동일하다.

공공 시설	상업 시설	농업 관련 시설(쌀 수출 및 가공)
a1 목포 일본영사관 군산 분관(1899)	b1 군산일본민회(1899)	궁선농장(1893)
a2 군산우체국(1905)	b2 소야오복점(1899)	공상농장(1895)
옥구감리서(1899)	오사카주식회사 군산대리점(1899)	도곡(島谷)농장(1904)
우체사(1899)	등본합지군산출장소(1899)	인합농장(1904)
전보사(1899)	옥구금융조합(1903)	천기농장(1905)
경무서(1899)	군산구락부(1904)	
	합자회사 강기상사(1905)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c1 군산일본민회(1899)	d1 금비라(金比羅)신사(1901)	구암예수병원(1899)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1899)	구암교회(1899)*	
알락(Alexander)소학교(1901)	서포교회(1901)	
영명학교(1903)	서수교회(1903)	

[표 1] 공공 업무 및 상업, 교육, 종교, 의료, 농업 관련 시설(1899년~1905년)
a1-d1(현재까지 확인된 1899년부터 1905년 동안 건축된 건물; 위치는 [그림 3] 참조)



[그림 4] 1899년부터 1905년까지 조계지 내에 건축된 근대 시설(a1,a2,c6)과 조계지 밖에 세워진 시설(d1,*)

3.2. 두 번째 근대의 시간(1906년~1915년)

이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개항과 함께 설정된 각국 거류지가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매매된 것이다. 토지 매입 비율은 일본인이 중국인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러일전쟁 이후 사실상의 경제적 식민화가 진행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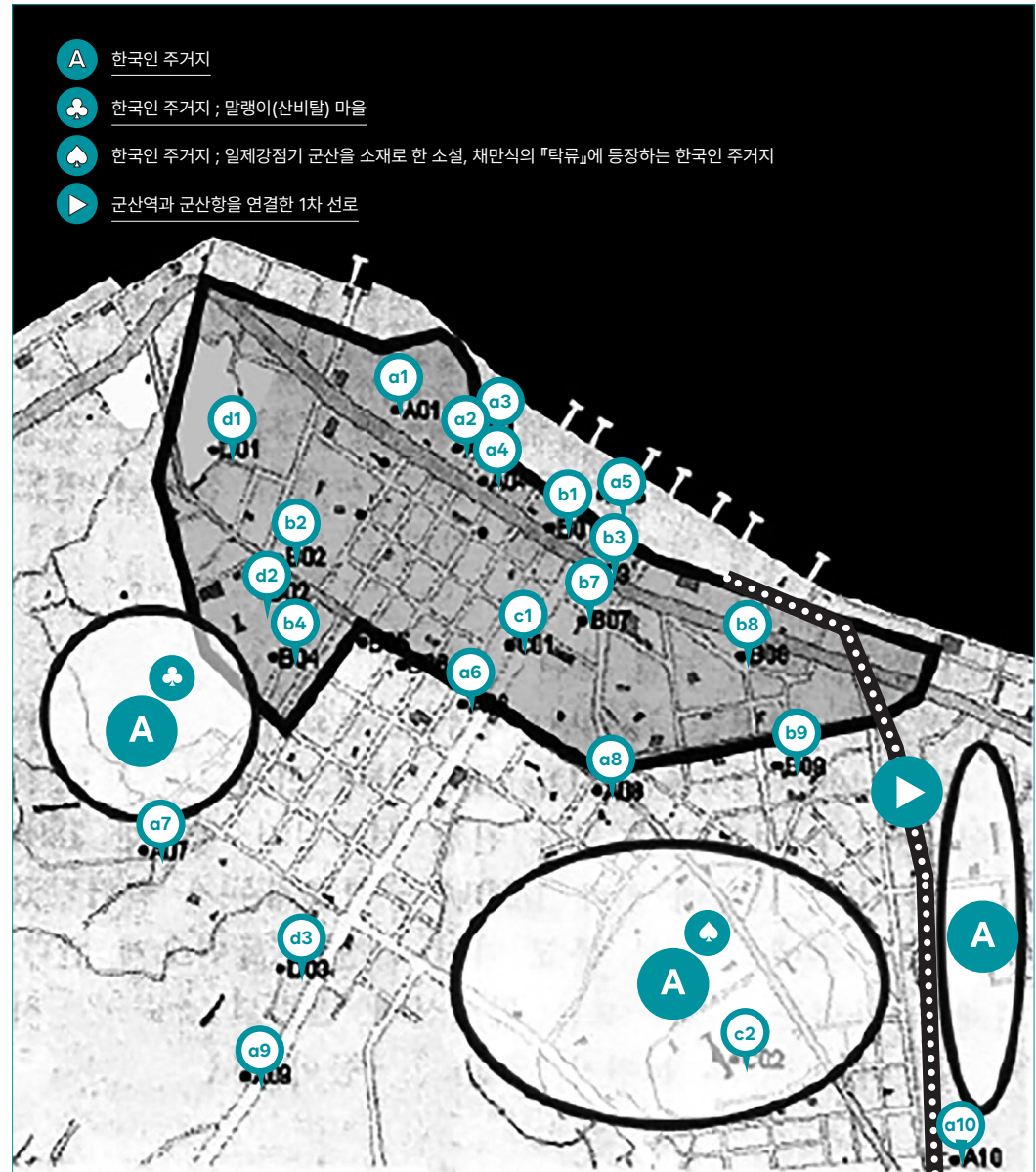
군산에서의 경제적 식민화가 집중된 대상은 쌀(米穀)이었다. 이 시기에 완공된 전주에서 군산까지 약 46km에 이르는 '전군가도(全群街道, 현 전군도로)'와 1차 항만 시설은 전통적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쌀 모두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대형 기반 시설이었다. 1908년에는 쌀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논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리조합(水理組合)'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군산에 급증한 농장과 창고회사는 쌀의 생산과 수출, 가공을 위한 상업 시설이었다.

쌀 수출을 위한 대형 도로 설비와 1차 항만 시설 완공과 함께 호남선을 비롯한 군산선 철도가 개통되고 군산항 또한 개통되었다. 근대적 항만 시설 공사는 대한제국 시기에

222223

시작되었지만, 군산항 건설이 본격화한 것은 1909년 이후이다. 1909년부터 1915년 사이에 잔교(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가 축조되었고 화물 전용 철도 인입선이 군산항까지 연결된다.

이 시기의 공공 업무 및 상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은 개항 당시 설정된 거류지에 대부분 위치한다. 단 관공서 중 재판소와 감옥, 군산역은 그 기능상 거류지 외곽에 세워졌다. 대다수의 상업 건물은 현재의 해방로에 해당하는 본정통과 명치정 대로를 따라 분포했으며 격자형 중심가 안쪽에는 일본인들의 주거지가 자리했다. 따라서 이곳에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소학교가 함께 있었다. 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와 교회, 병원은 거류지 외곽에 자리했다. 거류지가 일본인들의 주거 중심지가 되면서 본래 이곳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주거 공간이 거류지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그림 5] 1906년부터 1915년 동안 조계지를 중심으로 건축된 주요 근대 건물 위치; 개별 건축물 이미지는 [그림 6] 참조

공공 시설	상업 시설	농업 관련 시설(쌀 수출 및 가공)
α1 군산이사청(1908)	b1 기장 18은행 군산지점(1907)	b8 정미소(1910년대 초)
α2 군산세관(1908)	b2 군산상공회의소(1912)	임곡농장(1906)
α3 세관부속건물(1910년대 초)	b3 미국상조합(1910년대 초)	아전농장(1906)
α4 미국검사소(1910년대 초)	b4 군산전기주식회사(1911)	식본농장(1913)
α5 세관검사소(1910년대 반)	b5 곡구여관(1910년대 초)	고구농장(1914)
α6 전매지소(1910년대 초)	b6 군산일보(1910년대 초)	
α7 군산구재판소(1908)	b7 증전양복점(1910년대 초)	
α8 군산경찰서(1910)	W9 군산좌(1910년대 초)	
α9 광주감옥 군산분감(1910년대 초)	군산해산주식회사(1907)	
α10 군산역(1912)	군산창고주식회사(1907)	
	군산통상합자회사(1907)	
	군산신보사(1907)	
	극장주식회사(1909)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c1 군산유치원(1909)	d1 군산신사(1915)	풍도의원(1910)
c2 군산공립보통학교(1907)	d2 동본원사(1910년대 초)	
군산공업실업학교(1910)	d3 금광사(1910년대 초)	
임피공업보통학교(1912)	동국사(1913)	
멜볼딘(Merry Boldwine) 여학교(1913)	지곡교회(1907)	
옥구공립보통학교(1914)	남성교회(1908)	

[표 2] 공공 업무 및 상업, 교육, 종교, 의료, 농업 관련 시설(1906년-1915년)
α1-d3(현재까지 확인된 1906년부터 1915년 동안 신축된 주요 건물; 위치는 [그림 6] 참조)



α1 군산 이사청(개항기 군산에 설치한 일제 통감부 소속 행정 기관)



α2 군산 세관



α10 군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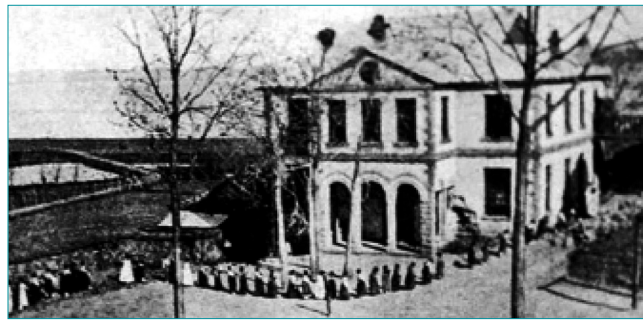
b1 일본 장기18은행 군산지점



b2 군산상공회의소



b3 군산미국상조합(미국취인소, 곡물거래소) 동국사



메리 볼드윈(Merry Boldwine) 여학교



b9 군산좌(극장)

[그림 6] 1906년부터 1915년 동안 건축된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α1, α2, α10, b1, b2, b3, b9(1906년부터 1915년 동안 건축된 주요 건물; 위치는 [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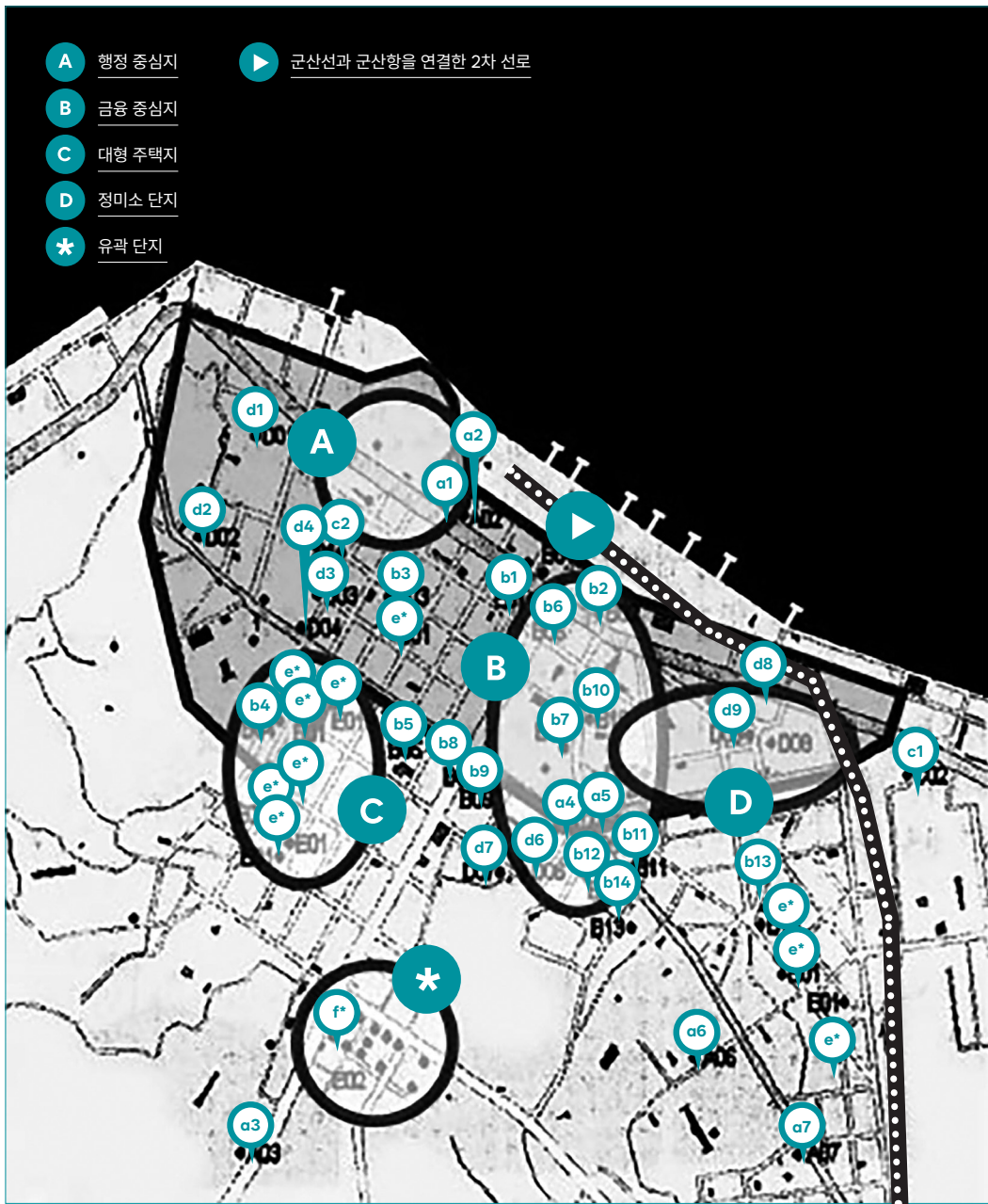
3.3. 세 번째 근대의 시간: 1916년부터 1925년까지

이 시기에는 1차 항구 시설에 이어 2차 항구 시설의 완비로 군산항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쌀의 저장 및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이 확충된다. 무엇보다 1912년에 개통한 군산선(군산 철도)이 군산항까지 연결되어 일본으로의 쌀 반출량이 급증한다. 이는 군산선이 군산과 옥구 지역의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일본인 농장 7개소의 쌀을 실어 나르는 호남선의 지선이었기 때문이다.

도시 행정의 중심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거류지 북쪽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그림 8] A 거류지를 벗어나 외곽으로 시가지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1920년대 전반 지도를 살펴볼 때 초기 거류지 전체가 시가지로 개발되었고 다음으로 기존 거류지와 군산역 사이의 지역에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현재의 중앙로와 죽성동, 영동에 상업 지역이 형성되었고 [그림 8] B 현 장미동의 동쪽 끝 지역에는 정미소 단지가 들어섰다. [그림 8] D 정미소가 군산역과 군산항이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이유는 철도를 통해 운반된 쌀을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거류지를 중심으로 시가지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개항 초기에 등장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 또한 그 면적을 확대해 갔다. 다양한 양식은 크게 일본식 건축 양식과 서구의 건축 양식, 여기에 두 양식을 혼합한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양식들 모두 각 나라의 오랜 지역성을 내재한 것이었으나 개항된 군산에서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마주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매우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모던한 물질성을 발산했다.

개항 초기에 거류지 내에서 눈에 띄는 하나의 점처럼 위치한 외래 양식의 건축물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기존 거류지를 벗어나 확장된 시가지에서 분포의 밀도를 더하게 된다. 특히 1930년대에는 마치 '모던 경성'이 군산에 복제된 듯한 양상이 전개되는데 백화점과 잡화점, 극장과 사진관, 과자점과 같은 상업 시설에서의 소비 경험과 건축 양식이 개항 도시 군산을 더욱 모던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림 7]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조계지를 중심으로 건축된 주요 근대 건물의 위치; 개별 건축물 이미지는 [그림 8] 참조

공공 시설	상업 시설	농업 관련 시설(쌀 수출 및 가공)
a1 농림성(1910년대 말)	b1 불이(不二)협업회사(1920년대)	d3 암본(岩本)주조장(1920년대 초)
a2 전북곡물검사소(1910년대 말)	b2 조선은행 군산지점(1923)	d4 상야(上野)주조장(1920년대 초)
a3 형무소 군산지소(1920년대 말)	b3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1924)	d5 장전(長田)주조장(1920년대 초)
a4 군산소방소(1920년대)	b4 군산전업사(1919)	d6 옥옥(玉屋)양조장(1920년대 초)
a5 군산경찰서(1925)	b5 군산상공회의소(1921)	d7 군산주조회사(1920년대 초)
a6 옥구군청(1920년대)	b6 군산미곡상조합(1921)	d8 화강(花岡)정미소(1920년대 초)
a7 군산세무서(1920년대)	b7 조선식산은행 군산지점(1919)	d9 길본(吉本)정미소(1920년대 초)
d2 공설운동장(1920년대)	b9 군산금융조합(1919)	인식(人食)농장(1917)
군산부상품진열소(1919)	b10 조선상업은행 군산지점(1917)	조일(朝日)정미(1920)

226227

a1 농림성(1910년대 후반)	b11 도비(島邊)오복점(1917)	팔목(八木)농장(1920)
a2 전북곡물검사소(1910년대 후반)	b12 동일은행 군산지점(1922)	갑배(甲裴)농장(1923)
a3 형무소 군산지소(1920년대 초반)	b13 옥구금융조합(1920초반)	
a4 군산소방소(1920년대)	b14 희소관(喜笑館)(1922)	
a5 군산경찰서(1925)	군산부영 청과물시장 (1918)	
a6 옥구군청(1920년대)	청수합명회사(1921)	
a7 군산세무서(1920년대)	협동해운주식회사(1922)	
d2 공설운동장(1920년대)	수호제염소(1923)	
군산부상품진열소(1919)	군산미곡신탁주식회사(1920)	
	남선호모주식회사(1925)	
	군산어업조합(1910년대 후반)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c1 군산간이수산학교(1915)	일본 기독교회(1916)	d1 독립군산의원(1910년대 후반)
c2 군산공립실과고등학교(1916)	비안도 순복음교회(1917)	b8 도비(島邊)치과의원(1923)
영명학교(1918)	신곡교회(1917)	관립 군산 자혜의원(1922)
대아공립보통학교(1921)	이곡교회(1922)	
신풍공립보통학교(1921)	신흥교회(1924)	
사림성산학교(1922)	옥봉교회(1924)	
구암유치원(1922)	천주교 군산본당(1925)	
군산중학교(1923)		
개정공립보통학교(1924)		
불이심상소학교(1924)		
어청도공립보통학교(1925)		

[표 3]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건축된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a1-d9(현재까지 확인된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건축된 주요 건물; 위치는 [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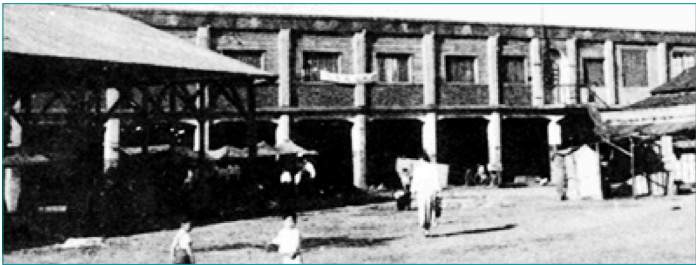
c2 군산간이수산학교 d1 군산도립의원 관립 군산 자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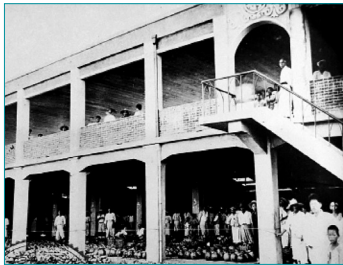
군산명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군산부영 청과물시장 외관



군산부영 청과물시장 내부

[그림 8] 1916년부터 1925년 동안 건축된 주요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a3, a5, b2, b13, b14, c2, d1(1926년부터 1945년 동안 건축된 주요 건물의 위치 [그림 9] 참조)

3.4. 네 번째 근대의 시간: 1926년부터 1945년까지

이 시기에는 군산 시가지의 확장과 군산항의 축항 공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군산항의 3, 4차 항구 시설이 완공되었고 동시에 군산항의 가장 상징적인 다리인 부잔교(浮棧橋)가 설치되었다.(1926-1933) 부잔교(浮棧橋)는 물의 증감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상 구조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항구에 설치되어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 '뽕다리'로 불린 부잔교는 일제강점기 동안 총 6기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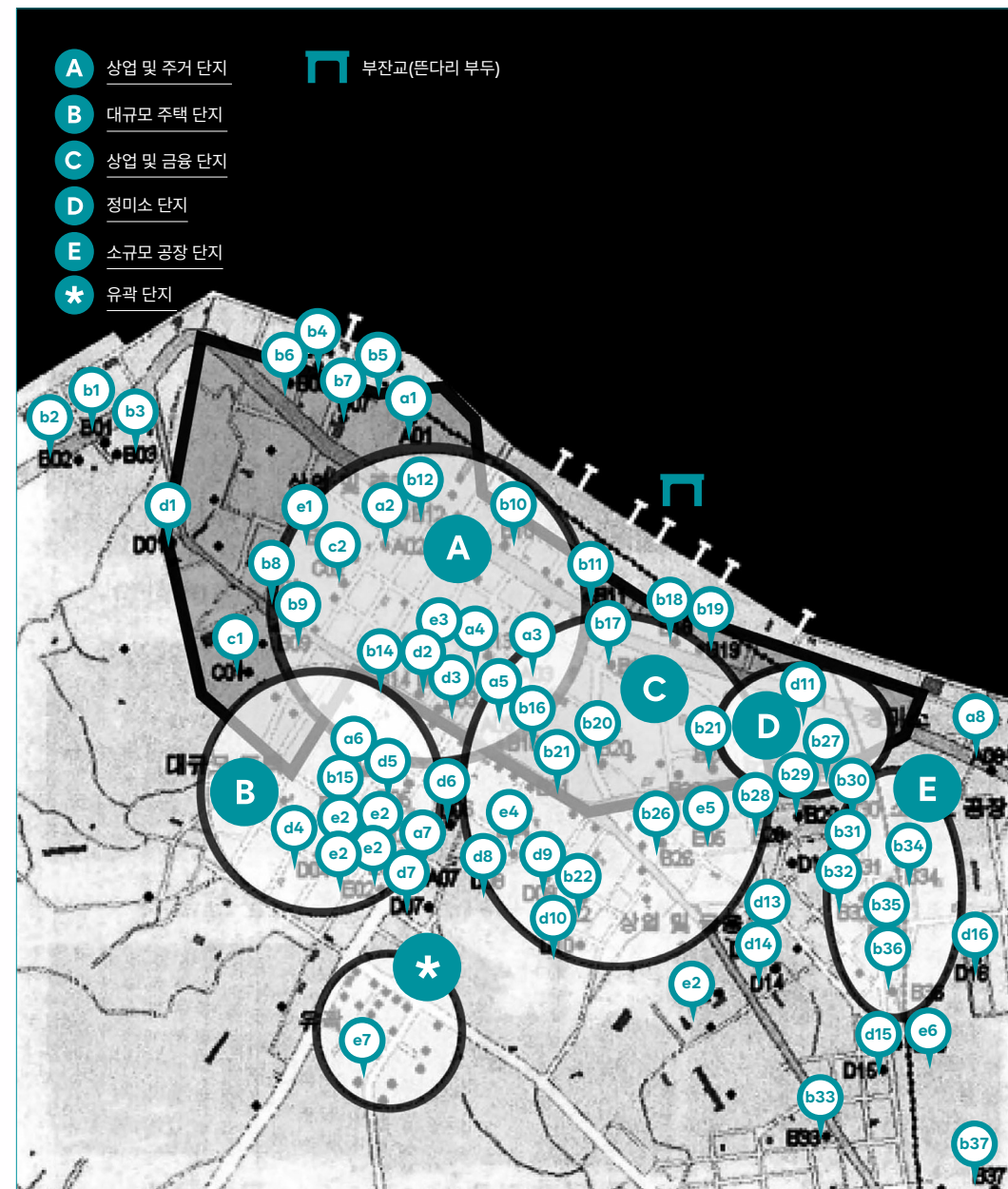
일본은 군산항에 이러한 부잔교를 설치하여 대형 선박 여러 척을 상시 정박할 수 있는 환경을 확고히 한다. 이는 쌀 수출뿐만 아니라 쌀을 재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증산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산업의 확대는 자본의 유입과 노동 인구를 더욱 폭증시켰다. 군산은 이로 인해 부산을 이은 전국 최대 미국 수출항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군산항의 물동량을 질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킨 것이 부잔교의 설치라면, 군산 시가지의 확장을 기존과는 다르게 촉진한 것은 '해망굴'의 개통이었다.

해망굴은 구 군산 시청 앞 도로인 중앙로와 수산업 중심지인 해망동을 연결한다. 1926년 이후 해망굴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군산 시가지가 서쪽 해안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해망굴의 개통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용도의 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특정한 구역이 192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었다. 대표적으로 거류지의 남서쪽 지역이 군산의 중심적인 시가지로 변모했다. 이 지역에는 군산에 큰 규모의 쌀 농장과 정미소를 운영하는 일본인 주택이 지어졌다. 본래 한국인의 주거지였던 원명동과 신흥동 지역에 중대형 규모의 주택을 짓고 생활했다. 현 신흥동에 자리한 일본식 가옥이 대표적인 예이다.

거대 자본을 소유한 일본인 농장주들이 기존 한국인의 주거 지역을 잠식하면서 한국인들의 주거지는 거류지 밖에 위치한다. 본래 삶의 터전이었던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형성된 한국인 주거지와 바둑판처럼 말끔하게 정리된 채 근대의 빛나는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채운 일본인 거류지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근대적인 삶의 양가적인 정서를 발산했다. ㉔

228229



[그림 9] 1926년부터 1945년까지 조계지를 중심으로 신축된 주요 근대 건물의 위치; 개별 건축물 이미지는 [그림 10] 참조

공공 시설	상업 시설(1)	상업 시설(2)
a1 군산항역	b5 삼국상회	b24 삼원합자회사
a2 군산시청 3청사(현)	b7 산전미상(山田米店)	b25 북천임본점
a3 직업장려관	b8 군산공화당	b26 부전옥백화점
a4 부림도서관	b9 군산일보	b28 군산동부금융
a5 군산부청	b10 상업상사회사	b29 군산청과회사
a6 전주지법 군산지청	b11 흥농비료	b30 소판철공소
a7 헌병분주소	b12 조선신탁회사지점	b33 익옥수리조합
a8 전복수산물시험소	b14 대야(大野)사진관	b35 군산철공소
b4 전복어업협회	b16 저축은행	b37 조선합동전기회사
b6 군산비료배급소	b17 산업회사	d11 조선정미회사

b15 재향군인회관	b18 군산염공등판매소	d13 학림주조장
b18 군산염공등판매소	b19 소야본선구점	d15 전변정미소
d4 간이보검진료소	b20 전정인쇄소	e2 대규모주택
e1 군산부윤관사	b21 삼중정(三中井)백화점	e3 서부여관
군산세무서	b22 군산극장	e4 송본여관
군산전매서	b23 황강철공소	e5 찌오아여관
군산전매청	상점잡화점	e6 유명여관
군산지방해무청	내동양행	e7 군산유곽
	군산동부금융조합	옥곡합동주조장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색삼제선공장
	영암철공소	파선제염소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의료 시설
c1 군산여자가정학교(1929)	d1 안국사	d2 군산병원
c2 군산유치원	원당교회(1927)	d3 하상의원
영신유치원(1931)	임피교회(1927)	d5 지전병원
심상유치원(1939)	선관교회(1931)	d12 안동의원
옥산공립보통학교(1928)	일본기독교교회당(1931)	d14 세창병원
마룡공립보통학교(1934)	중앙기독교성결교회(1931)	인제의원
희현공립보통학교(1935)	지양교회(1931)	
승산공립보통학교(1937)	금암교회(1932)	
옥룡공업보통학교(1941)	성덕교회(1932)	
군산공립상업학교(1941)	중앙성결교회(1933)	
군산화교소학교(1941)	군산기독교복음교회(1935)	
미룡심산소학교(1939)	나포교회(1935)	
비안도공립심상소학교(1943)	별산교회(1938)	
신지도공립국민학교(1943)	말도기독교성결교회(1939)	

[표 4] 1926년부터 1945년 사이에 건축된 주요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α1-d9(현재까지 확인된192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신축된 주요 건물, 위치는 [그림 10] 참조)



α2 군산 부청



b2 군산부윤관사



일본기독교교회당



이즈모야 과자점(현 이성당 전신)



미나카미 백화점(군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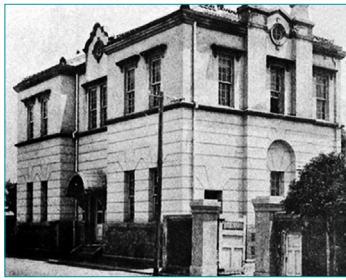


전북수리조합(군산점)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특집 기획: 디자인 기행 Special Feature: A Short Design Field Trip

230231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α4 부립도서관



군산여자고등학교



불이농촌(不二農村)주택(일본 불이흥업회사에서 조성한 소작농 주택)



남조선전기회사

[그림 10] 1926년부터 1945년 동안 건축된 근대 시설(공공, 상업, 농업, 교육, 종교, 의료 시설), α2, α4, b2(192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신축된 건물의 위치 [그림 11] 참조)

참고문헌

- 군산시, (1991), 「군산시사」
- 김민영, (2011), 「식민지 시대 개항장 도시 일본인의 생활 세계와 식민지 인식에 대한 실증 연구: 동창회·향우회 명부, 사진첩, 추억록의 분석」, 『한국 도시 연구』 23-2, 한국도시학회
- 김영정·소순열·이정덕·이성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한올아카데미
- 김중규, (2001), 「군산역사이야기」, 나인
- 김홍순, (2011),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 나타난 근대성」, 서울시연구, 8(4), 155-173
- 박성신, (2018, 『한국안내』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 박종헌·권영·이채성, (2006), 「일제강점기 신도시 공간 구조 분석: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7)
- 손정목, (1994), 「한국 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 손석기, (2004),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
- 오세미나, (2012), 「군산 지역의 제과점을 통해 본 근대의 맛과 공간의 탄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군산항을 중심으로」, 지리학, 20(2)
- 최혜주, (2019), 「군산개항전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s://museum.gunsan.go.kr>
- 디지털군산문화대전, <https://gunsan.grandculture.net/gunsan/toc/GC05700474>